

패션디자인 발상을 위한 콜라주 활용 연구

이 민 선[†]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 Study on Collage as a Means of Generating Creativity in Fashion Design

Min-Sun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3. 4. 8. 접수; 2003. 9. 13. 채택)

Abstract

In the post-modern society, creativity is redefined as a capability which collects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recombines them in diverse manners. With a such trend, the characteristics of collage — a method of making a creative image by combining pieces which have no relevance— is becoming prevalent in the post-modern cult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odel which generates ideas in fashion design by use of collage techniques. With regard to research methodology, a literature survey was undertaken to find out and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collage. Analytic and positive studies were also done on the styles of fashion design of the 2003 SS collections to which collage techniques applied. In order to generate ideas in fashion design, the following mechanism using collage techniques can be used. Above all, pluralism is realized by collecting incoherent elements. Secondly, deconstruction is made by changing scales and configuration. Lastly, relativity is attained by using parts of ready-made goods and respecting their independency.

Key words: collage(콜라주), creativity(창의성), de-construction(탈구조성), pluralism(다원성), relativity(상대성).

I. 서론

상품 디자인은 현실의 생활 또는 현실의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제작하는 것 즉 과학과 예술을 조화시키는 행위이다. 여기서 과학이란 디자인의 가치가 개인의 감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띤 성질의 것을 말한다¹⁾. 또한 디자인이란 단어는 라틴어 데지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획을 기호로

명시한다' 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단어적 뜻으로는 어떠한 행동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세스 또는 설계라는 것으로 사용되며, 이는 목적에 합치하는 조형의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 즉 조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와 같은 디자인에 관한 답론은 패션 디자인 과정의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개발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에서 창조적 발상을 위한 모형의 한 가지 예를 개발하여, 디자인 방법을 이론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교신저자 E-mail : minsun@smu.ac.kr

1) 김병익, 이용직, *디자인 개론* (서울: 태학원, 1999), p. 20.

2) 임연웅, *현대디자인원론* (서울: 학문사, 1999), p. 13.

창의적 발상법은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심리에 호소할 수 있는 패션 상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문화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 진행 중인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복수주의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문화의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세대가 대중 문화의 소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 외식 산업분야에서는 김치 버거와 같은 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음악 분야에서도 '사이드 힙합', '하드코어스릴러'와 같은 변종의 문화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³⁾. 이와 같이 문화 전반에 플라주 현상⁴⁾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패션에서도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된 의상들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트렌드에 주목하여 플라주의 정의와 조형 양식 및 의지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선행하고, 플라주가 활용된 패션 디자인 사례들을 2003년 SS 컬렉션에서 발췌하여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 창의적 발상 모형 중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는 포스트모던 사회 내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즉 무한한 정보를 끌어 모으고, 이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재결합해 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에서 창조적 발상을 위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활동 및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1.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문화 플라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 발상을 위한 플라주 활용 의의를 밝힌다.
2. 미술에서 플라주 발생과 전개 과정 및 조형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플라주 특성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의 양식 및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

적인 배경을 구성한다.

3. 플라주 특성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조형 양식 및 의지를 탐구한다.
4. 앞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 발상을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II. 포스트 모던 사회와 문화 플라주 현상

물리적 폐기 이전에 심리적 폐기가 이루어지는 패션 상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 트렌드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문화 내에서 나타나는 문화 플라주 현상 즉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조합해 하나의 실재를 이루는 문화 현상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상품에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디자인 발상법 개발에 있어서 플라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 플라주 현상과 사회적 배경

우리는 지금 탈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관습과 사조 및 지배 문화에 한계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깨달음과 움직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시대에 대두된 해체론은 온갖 중심주의의 허구를 들추며 역사상에 그동안 주변으로 몰려났거나 지워져온 것들이 자외적인 구조의 문제였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⁶⁾.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창작 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던 주체가 해체되고, 고급문화, 대중문화를 구분 짓던 경계가 와해되었으며, 작품의 양식에 있어서도 모든 경계를 설정하는 사고 역시 붕괴되고 있다. 이는 Derrida의 언어관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기표와 기의는 계속해서 분리될 뿐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어떤 하나의 기호에 완전히 현존되는 것

3) 조선일보, 2000. 4. 4 목

4)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1997), p. 127.

5) 김성곤,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v.

6) Madan Sarup and Chung-ying Cheng,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임규현 번역 : *임문적 안내* (서울: 이론과 실천, 1993), pp. 25-27.

아라기 보다는 현존과 부재 간에 끊임없는 교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와 예술 작품에 있어서 초월적인 기의가 부정되면서 각 기표들이 분리되고 떠돌면서 끊임없이 재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플라주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포스트모던 문화 내의 문화 플라주 현상의 정신은 하나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열린 태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움직임은 다국적 자본주의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국적 자본주의는 주로 국내 시장에서 자본의 발달로 특징 지워지는 시장자본주의와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어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국들과 그들에게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식민지 사이의 착취와 불균형에 의존하던 제국주의 시대의 독점 자본주의와는 다른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국가간 경계의 초월 현상이 현저해진 특성을 가진다⁹⁾. 즉 다국적 자본주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모든 제도, 관념, 예술적 표현 가치, 개인의 정신조차 기업의 봉사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던 역사까지도 상품 디자인의 원천으로 끌어들인다. 다국적 자본주의는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고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 그들의 다문화적 상품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¹⁰⁾ 문화 플라주 현상을 확산시켜왔다.

따라서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 방법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패션 상품 디자인 개발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2. 포스트모던 문화와 창의성의 의미

Jameson은 포스트모던 문화내에서는 중심화된 주체가 죽음을 지적하면서¹¹⁾, 오늘날의 예술가나 작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단지 제한된 숫자의 조합만이 가능하다고 논의한다¹²⁾.

패션에서도 이러한 독보적인 '저자', 즉 디자이너의 위치는 해체되었고, 디자인의 영감은 지금까지 무시해오던 영역으로부터 얻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이패션은 하위문화 스타일이나 패션 이외의 영역으로부터 그 이미지를 차용, 복제하여 새롭게 조합하면서 더 이상 패션의 경향은 하이패션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되지 못하고, 현대의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주의'를 돌려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창조성의 고갈이라기보다는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창조성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는 포스트모던 문화 내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이란, 무한한 정보를 끌어모으고, 이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재결합함으로써 창작을 구현하는 실험인 것이다¹⁴⁾.

분리되어 떠도는 다양한 기표들이 결합된 재조합형 상품(recombinant commodity)은 급속도로 사회의 회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결합, 재결합을 되풀이 하면서 급속하게 네트워크, 즉 사회의 회로를 이동한다¹⁵⁾.

포스트모던 문화는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또는 타자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7) 정은주,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8) 김성곤, *Op. cit.*, pp. v-vi.

9) Steven Connor,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포스트모던 문화, 김성곤, 정정호 공역 (서울: 한신문화사, 1997), p. 52.

10) 원용진, *대중문화의 페러다임* (서울: 한나래, 1996), p. 275.

11) Frederic Jameson,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i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1991), p. 155.

12)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Hal Foster(eds.),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윤호병 외 역 (서울: 현대미술사, 1994).

13) 양화미,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26.

14) Nobeit Bolz, *Das Kontrollierte Chaos, 컨트롤된 카오스*, 윤종석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1).

15)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p. 252.

모순적인 것들의 병존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도 통일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제 인간이나 사물의 정체성을 보는 관점은 단선적(linear)이고 논리적(logical)이고 위계적(hierarchical)이며 투명하다는 모던한 관점에서 벗어나 탈중심화(decentered)되고, 유동적(fluid)이고 비단선적(nonlinear)이며 불투명하다(opaque)는 포스트모던한 관점으로 전환된다. Poster의 지적대로,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은 바로 현대 사회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며¹⁶⁾,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 전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Ⅲ. 콜라주 발생과 전개

이 장에서는 콜라주의 발생과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콜라주의 개념을 조형 양식과 의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콜라주가 활용된 패션 디자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콜라주의 정의

콜라주란 불어의 Collee(폴로 붙이다)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 “붙칠”, “붙칠 바르기” 따위의 의미로 전용되어 1912년 입체주의에서 실험하던 Papier-Collé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는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 젓가락,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 것을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기법 또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키는 용어였다¹⁷⁾. 그러나 콜라주가 입체주의 이래 여러 화파를 거치면서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되고, 그 의미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어 최근에는 광범위한 개념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Jameson은 콜라주를 모든 화면을 한꺼번에 보게 하고, 각 화면이 갖는 근본적이면서 임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¹⁸⁾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술에서 콜라주뿐만 아니라 브리콜라주, 혼성모방, 패러디 등도 형식 면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서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먼저 콜라주는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를 분명하게 하는 독창적인 전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창조적으로 조합한 것¹⁹⁾으로 정의된다.

브리콜라주는 콜라주에 대한 하나의 실천으로 Lévi-Strauss는 브리콜라주의 특징을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요소들을 배열하고 재배열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여 저항하는 해방자로 묘사한다²⁰⁾. 즉 브리콜라주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에 비해 혼성모방은 무의미한 허무주의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들과 구분되며, 패러디는 원본에 대한 조롱, 풍자, 또는 유머스런 목적을 갖는다²¹⁾.

따라서 콜라주는 의미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할 수도 있으며, 별다른 의미없는 어떤 독창적인 전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다. 즉 이 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은 모두 콜라주로 정의됨으로써²²⁾ 콜라주의 의미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특징적이며, 개성적인 방법론들이 모두 콜라주의 의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²³⁾.

2. 콜라주의 전개

콜라주는 입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팝아트 등의 미술사를 거치면서, 소재에 따라 표현 기법에 따라 조형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고, 파

16) Mark Poster, *Cyberdemocracy: Internet and the Public Sphere*. In David Porter(ed), *Internet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7) pp. 201-218, 재인용, 이재현, *Op. cit.*, p. 161.

17) 계간미술편, *현대미술 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1), p. 173.

18) Fredric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론*, 정정호 강내희 편역 (서울: 도서출판 터, 1992), p. 175.

19) Group Mu(des.), *Collages* (Paris: Union Generale, 1978), pp. 13-14, 재인용,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윤호병 외 역 (서울: 현대 미학사, 1994), p. 134.

20) Claude Lévi-Strauss, *The Savag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p. 22.

21) 양화미, *Op. cit.*, p. 10.

22) 성완경, 김안례 역, *현대 미술의 개념*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 98.

23) 양석희, “콜라주 기법의 조형적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8.

피에 콜레(papier collé), 레디메이드(ready-made), 포토 몽타주(photo montage), 앗쌍블라쥬(asssemblage), 오브제(objet), 데칼코마니(decoupage), 프로타쥬(frontage) 등 여러 장르로 파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콜라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기법 중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를 분명하게 하는 독창적인 전체성을 위해 새롭게 창조적으로 조합된 것'이라는 정의에 충실하여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레디메이드(ready-made), 포토 몽타주(photo montage), 앗쌍블라쥬(asssemblage)의 네가지 장르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1)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콜라주의 어원은 불어의 "아교로 붙임", "바르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20세기 초 입체파 화가들(Cubist)에 의해 시도된 **빠페에 콜레(Papier Collé)**를 근원으로 발생하였다²⁴⁾.

입체주의의 사상은 "모든 물체는 구, 원추, 원통으로 환원된다"는 세잔의 시각과 생각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대상을 분석하였고, 분해된 단면을 화면 안에 재구성하는 입장에서 조형 활동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전개에 따라 **빠페에 콜레**라는 표현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²⁵⁾ 1925년에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미술의 기본 조형 요소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²⁶⁾.

빠페에 콜레(papier collé)란 종이를 붙인다는 뜻으로, 큐비즘 화가들이 화면에 낚은 신문, 악보, 담배갑, 레테르, 벽지 등을 단편적으로 부착하여 특수한 표현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시작되어²⁷⁾ 일대 유행을 가져왔으며,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로 확대되어, 단순한 인쇄물을 부착하는데 끝나지 않고 모래, 금속물, 털, 기타 일상적인 물질을 화면에 부착하는 콜라주의 방법으로 확대되었다²⁸⁾. 그후 팝아트에 이르러서는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포함할 만큼 상당히 확대되었다²⁹⁾.

2) 레디메이드

미국 뉴욕에서는 다다이즘적 성향의 콜라주 기법이 소개되고, 1915년에서 1920년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는데, 다다이스트들은 전통적인 회화의 도구를 버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개성적인 기성 제품들을 심미적 감각의 작용을 배제하여 시각적인 무관심 상태에서 선택하여 서명하거나 도발적인 제목을 붙여 레디메이드를 창조했다. 프랑스 화가인 뒤상이 창조해 낸 레디메이드라는 미적 개념은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산업적 오브제가 예술적 오브제로 승화된 것이다. 예술가에 의해 선택된 일상적 오브제는 예술적인 맥락으로 위치 전환함으로써 하나의 변형을 표상한다. 관람자가 위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한 그 순간에 바로 일상적 오브제가 그 의미를 띠게 되고 그것을 형이상학적 단계에서 해독하게 되는 전환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팝아트, 신사실주의 및 개념 미술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³⁰⁾.

3) 포토 몽타주

다다이스트들은 새로운 이상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는 새로운 통일성을 창조할 목적에서 사진을 최초로 소개로서 활용하였다. 사진들을 절단하여, 절단된 사진들과 절단된 덧칠화들을 조합시켜 포토 몽타주가 탄생하였다. 오래된 사진 이미지로 만들어진 겹쳐진 이미지는 사진의 기록적인 진실과 환상적인 세계를 결합할 수 있게 하였다. **빠페에 콜레**나 다다이즘의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John Heartfield(1891-1968) 및 George Grosz(1893-1959)가 1919년 처음 만든 포토 몽타주는 부분은 각각 독자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구성으로 나타난다. 포토몽타주는 Mass Media가 모든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무시한 행위이며 전통적 의미의 콜라주 개념을 확산시킨 것이라 할 수

24) 공혜민,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3.

25) 이화자, "콜라주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7.

26) Florian Rodari, *Le Collage* (Geneve: SKIRA, 1988), p. 11.

27) 양석희, "콜라주 기법의 조형성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4.

28)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열화당, 1981), p. 21.

29) 이영철 엮음,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1996), p. 199.

30) 이화자, *Op. cit.*, p. 8.

있다³¹⁾.

이후 포토 몽타주를 포함한 콜라주 작업은 영화, 건축, 패션 그리고 연극 같은 대량 소통 형태로 확장되었다³²⁾.

4) 앳상블라주

뒤상의 “레디메이드”는 팝아트에서는 “앳상블라주(Assemblage)³³⁾” 미술로 전개된다. 앳상블라주는 삼차원적 콜라주라고 할 수 있다.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다양한 재료와 색깔로 모험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고 중심이 제거된 이미지의 불확실성은 삶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여 혼란하고 불안정한 세계를 무관심한 우연의 결합이 사고에서 추리된 기하학과 유사한 질서로 재구성된다³⁴⁾.

일반 대중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즐겨 애용하는 “소비상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오브제와 예술과의 접촉을 진행한 팝아트 작가들은 각자가 선택한 물체를 개인적인 방법으로 재현하려고 하였다³⁵⁾. 팝아트에서 오브제가 갖고 있는 일상성을 회화의 소재로 끌어들이었다는 것은 회화를 일루전화에서 해방시켜 직접의 현실을 사물화함으로써 얻어진 보편성과 무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³⁶⁾.

3. 콜라주의 기법과 조형 의지 고찰

큐비즘의 싹에 팔레로부터 시작된 콜라주의 정신적 의미와 물질적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와 운동으로 이행되었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싹에 팔레, 레디메이드, 포토 몽타주, 앳상블라주 등을 포함하는 콜라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다원성의 표현이다. 콜라주는 비합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배열된다.

서로 거리가 먼 리얼리티들이 낮은 평면 위에서 남으로써 리얼한 이미지들이 변질된 새로운 환상을 일으킨다³⁸⁾. 이와 같이 콜라주는 시간, 공간, 상황을 초월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열린 공간에 모여 다원성을 구현한다.

둘째, 탈구조성을 실현한다. 콜라주는 구질서에 대항하고, 예술의 영속적 가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특이적 무기로써 나타났다. 모든 상황에서 전통적 작품에서 나타난 환영의 일관성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콜라주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입체파 화가들은 축적과 대치 즉 크기를 변화시키고, 데페이즈망(dépayement) 기법을 사용하여,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어 다른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작품을 조작해서 회화 공간을 재정의하고자 했기 때문에 콜라주에서 그 방법론을 찾은 것이다³⁹⁾. 즉 콜라주에서는 사물의 본래 용도나 의미를 제거하여 사물을 오브제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셋째, 상대성의 구현이다. 콜라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융해되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물들이 물리적으로 조합됨으로써 각 부분이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여 독자성을 유지하고 부조화를 분명히하면서 독창적인 전체성-비록 허상일지라도-을 나타내는 것이다.

IV. 패션 디자인 발상을 위한 콜라주 활용 연구

1. 콜라주 특성이 활용된 패션 디자인 분석

1) 다원성

포스트모던 문화 내에서 패션은 한 가지 종류의 존재(일원론) 혹은 두 가지 종류의 존재(이원론)가

31) 최정숙, “콜라주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23.

32) 이영철 뒤음, *Op. cit.*, p. 200.

33) 정준모, “콜라주 기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77.

34) 최정숙, *Op. cit.*, p. 40.

35) 이화자, *Op. cit.*, p. 11.

36) 정남영, “현대미술에 있어서 콜라주의 변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37.

37) 이화자, *Op. cit.*, p. 12.

38) Herschal B. Chipp, *Theories of Modern Art*, (Univ. of Clifornia Press, 1968), p. 427.

39) 최정숙, *Op. cit.*, p. 38.

아니라 여러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존재론적 견해⁴⁰⁾, 즉 다원론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패션 코드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이 부여하는 일관된 틀에서 벗어나 조합되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불확정적이고 미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열린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1) 시 간

세기말에서 오는 혼돈과 불안함, 전쟁과 자연의 훼손 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과거의 양식이나 요소들을 끌어와 디자인하는 회고적인 경향과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는 의도에서 미래적 요소를 절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⁴¹⁾.

Alexander McQueen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콜렉션을 영상과 함께 구성하였다. <그림 1>은 19세기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자수가 놓여진 밀리터리룩의 짧은 재킷과 미래적인 이미지의 금속성 소재로 만든 펜츠를 매치시킴으로써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Anna Molinari가 디자인하는 Blugirl 콜렉션은 플

라워, 애니벌 모티브 등을 이용해 귀엽고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림 2>는 중국의 전통적 자수가 놓여진 차이나이즈 드레스에 70·80년대 교련복에 사용되던 범피 문양의 태닝으로 미드리프를 구성함으로써 역사 속의 두 시대의 간극을 넘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2) 공 간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범세계적인 원격통신망의 발달, 해외 여행의 선풍은 유럽과 북미·환태평양 지역 간의 교류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매스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보급에 이은 광케이블의 발전과 인공 위성에 의한 통신 혁명 및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의 보급과 확산으로 세계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손쉽고 빠른 교류가 가능해졌다. 이 결과로 패션에도 세계의 문화가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⁴²⁾.

John Galiano는 컬러플한 패턴과 색상을 사용하여 다이나믹한 컬렉션을 구성했다. <그림 3>의 인도의 사리를 연상케 하는 드레스와 가죽 소재의 서양의



<그림 1> A. McQueen
(2003 S/S Collection)



<그림 2> Blugirl
(2003 S/S Collection)

40) Donald D. Palmer, *꿈을 수 없이 무거운 철학 가볍게 하기*, 남경태 역 (서울: 현실과 과학, 2002), p. 408.

41) 최수아,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67.

42) Penelope, Harvey, *Hybrids of Modern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 6.

밀리터리 재킷은 동서양 문화의 퓨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Roberto Cavalli는 <그림 4>에서 처럼 중국 문양의 시노와즈리(chinoiserie) 드레스와 서양의 코르셋으로 웨이스트를 강조한 에로틱한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동양과 서양 의복 문화의 정수를 한데 보여준 컬렉션이었다.

(3) 상황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디자인 코드를 사회의 위계 질서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개성, 문화적 트렌드, 미적 취향에 관한 표현을 위해 활용하게 한다.

Nicholas Ghesquiere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Balenciaga는 스포츠로부터 영감을 얻고, 광택있고 몸에 밀착되는 소재가 사용된 매력적인 커리어 우먼 스타일을 혼용하여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의 셔츠를 광택과 신축성을 지닌 소재로 구성하고 험라인을 스포츠 웨어의 험라인으로 대치함으로써 일과 여가라는 상반된 상황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Yoji Yamamoto는 페미닌 감성에 기능성을 가미한 컬렉션을 보여주었다. <그림 6>은 꾸뛰르 감각의 두 가지 종류의 이브닝 드레스에서 상의와 하의를 각각 제작하고, 메탈장식의 서스펜더를 착용하여 이질적인 상황에서 입혀질 수 있는 패션 코드를 한데 어울려 표현함으로써 포스트모던 문화의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다.

2) 탈구 조성

일상 우리가 쓰는 사물들은 모두가 그 본래의 용도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오브제르 쓰일 때에는 그러한 본래의 용도나 그 의미는 제거된다.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사물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처 경험 못하는 이상한 물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해주는 대상이 바로 오브제이다⁴³⁾.

이렇게 의미를 잃은 기표들은 자유롭게 부유하면서 우리가 고정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규모나 용도가 변경되고, 제 자리에서 벗어나 낯선 위치에 재배치됨으로써 새로운 물체로서 존재하며 독창적인 전체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림 3> J. Galliano
(2003 S/S Collection)



<그림 4> R. Cavalli
(2003 S/S Collection)



<그림 5> Balenciaga
(2003 S/S Collection)



<그림 6> Y. Yamamoto
(2003 S/S Collection)

43) 양석희, *Op. cit.*, pp. 41-42.

(1) 규모 전환

Finkelstein은 패션은 욕망의 조작, 이에 따른 즐거움 그리고 상상력의 유희⁴⁴⁾라고 했다. 폴라쥬는 서로 크기가 다른 사진들을 오려내고 재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부분들은 통일된 규모를 이루기 힘들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예상 밖의 새로운 실루엣이 창출되면서 상상력의 유희를 펼칠 수 있다.

Vivienne Westwood는 아트적 감각의 입체적 의상들을 선보였다. <그림 7>은 내추럴한 느낌의 소재들을 사용한 재킷에 커다란 주머니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분의 실루엣을 특이한 볼륨으로 변화시켜 핑키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A. F. Vandevorst는 레이어드 기법과 자카드 격물 사용으로 고혹적인 매력을 연출하였다. <그림 8>은 흰색 코트 안에 커다랗게 규모가 변형된 자카드 소재의 재킷을 레이어드스킴으로써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보여준다.

(2) 용도 전환

Saussure의 언어 체계에서 기표(signifier, 단어 또

는 음성 이미지)는 의미를 운반하고, 기의(signified: 개념)는 기표가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둘이 함께 기호를 만들고, 그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었다⁴⁵⁾.

그러나 탈시대에는 확정적인 기의는 깨어지고 기의에서 분리된 기표는 그 자체로 존재하여 그 의미는 계속해서 미끄러지며 불확정적이 된다. 이러한 문화 내에서 용도라는 하나의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기능성을 상실한 아이템은 자유롭게 이동하여 재배치됨으로써 새로운 의미-용도 혹은 장식과 같은-를 지니게 된다.

<그림 9>에서 Martin Margiela는 헴라인을 끌어올리거나 상의 하단 부분에 앞뒤를 연결하여 허리 아래로 늘어뜨림으로써 독창적인 드레스를 선보였다. 특히 구두를 감싼 신은 형광색 스타킹의 스타일링은 본래 신발 안에 신는 스타킹이라는 용도를 실외용으로 전환하여 독자적인 컬렉션을 연출하는데 기여하였다.

Antonio Berardi는 프릴과 러플 등과 같은 로맨틱한 디테일을 그의 특유한 감성으로 마무리하여 과잉플한 컬렉션을 완성시켰다. <그림 10>은 여성의 코



<그림 7> V. Westwood <그림 8> A. F. Vandevorst
(2003 S/S Collection) (2003 S/S Collection)

<그림 9> M. Margiela <그림 10> A. Berardi
(2003 S/S Collection) (2003 S/S Collection)

44) J. Finkelstein, *After a Fashio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96), p. 37.

45) 소두명, *상징의 과학 기호학* (서울: 인간사랑, 1994).

르셋을 머리에 얹음으로써 모자라는 용도로 전환시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3) 위치 전환

사물이나 사물의 어느 한 부분을 원래 있던 위치에서 떼어내어 낯선 환경 속에 배치하는 플라쥬의 데페즈망 기법은 다분히 실험적인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Phoébé Philo에 의해 세련미 넘치는 컬렉션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Cloé는 <그림 11>에서 처럼 페미닌한 스타일링에 골드와 화이트 장식을 첨가하여 로맨틱하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컬렉션을 연출하였다. 이번 컬렉션에서 사용된 장식은 구멍이 없는 단추를 의상 전체에 산재하여 배치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Jean Paul Gaultier는 특유의 로맨틱 감성에 스포츠, 핑크를 적절히 믹스한 컬렉션을 보여주었다. <그림 12>에서 재킷의 뒷면을 앞부분으로 위치를 전환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3) 상대성

미학에서 말하는 상대수이란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며, 모든 가치는 시간, 공간,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⁴⁶⁾.

플라쥬 기법이 활용된 패션에서는 기존 사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가장 양립하기 불가능한 의양들이 각자가 주종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의 독창적인 전체를 만들어 낸다.

(1) 기존 사물 사용

플라쥬 기법은 사물의 원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에 그 표현 목적을 둔다⁴⁷⁾. 뒤상이 틀짜기와 컨텍스트가 의미를 규정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소비 물품과 이미지들을 레디메이드 예술로 도용한 이래⁴⁸⁾ 패션에서도 이와 같은 기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에 모던함을 가미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Paul Smith는 <그림 13>에서 처럼 넥타이를 연결해서 만든 스커트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Christian Dior는 '섹시한 할리우드 쇼걸'에 매니시한 감성과 스포티한 감각을 믹스시킨 스펙터클한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그림 14>에서는 깃털, 스팅글을 장식한 시드루 드레스 위에 기존의 남성 재킷



<그림 11> Cloé
(2003 S/S Collection)



<그림 12> J. P. Gaultier
(2003 S/S Collection)



<그림 13> P. Smith
(2003 S/S Collection)



<그림 14> C. Dior
(2003 S/S Collection)

46) Donald, D. Palmer, 남경태 역, *Op. cit.*, p. 408.

47) 양석희, *Op. cit.*, p. 12.

48) 이영철, *Op. cit.*, p. 199.

을 뒤집어 입은 후 허리 아래 부분을 트레이퍼리지
게 재구성하여 매치시켰다.

(2) 독립적인 관계 유지

Derrida가 주변으로 물러났거나 지워진 것들이 중
심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임을 드러낸 이후 중심
을 가지고 있는 현존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사용
된 재료나 오브제들은 각각의 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독창적인 전체를 만들어내는 콜라주 양식이 확산되
고 있다.

Moschino는 서로 다른 패턴과 아이템을 레이어드
한 스타일링이 독특한 멋을 자아냈다. <그림 15>는
지퍼를 끈으로 연결하고, 칼라와 요크, 벨트, 주머니
등을 기존의 레인 코트에서 떼어 낸 파편들로 구성
함으로써, 지퍼, 끈, 레인 코트의 디테일이라는 각 요
소들이 상대적 가치를 지니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
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Seredin & Vasiliev는 인도의 불교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콜렉션을 구성하였다. <그림
16>은 인도 이미지를 담은 컬러풀한 프린트 직물에
리메이크 데님을 매치하고 꾸뛰르적 감성을 지닌 악
세서리를 코디한 것이다. 각 아이템들은 자기의 소
리를 잃지 않으면서 불루라는 색상으로 통일된 전체
를 이루어 독특한 느낌의 오리엔탈 캐주얼 스타일이

신선함을 느끼게 하였다.

2. 콜라주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 모형 및 활용 예

미술에 표현된 콜라주 기법을 통해 얻어진 다원
성, 탈고정성, 상대성이라는 조형성과 그 의미는
2003년 SS collection에 발표된 패션들을 분석함으로
써 확인되었다. 다원성, 탈고정성, 상대성이라는 콜
라주적 기법은 많은 경우 한 스타일에서 동시에 이
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대중 잡지 등과 같
은 매스 미디어에서 파편적인 조각들을 <표 1>과 같
이 시간 또는 공간, 상황을 혼용하여 모으고, 각 부분
의 규모를 변형시키거나 용도를 변형시키고, 재 위
치에서 떼어내어 낯선 위치에 배치시키되, 각 부분
이 독자성을 잃지 않도록 즉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
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만큼만 변형시키고 재위
치시킨다. 즉 시간, 공간, 상황을 혼용하여, 다원성을
구현하고, 규모 전환, 용도 전환, 위치 전환을 통하여
탈구조성을 실현하고, 다원성 및 탈구조성을 이룬
디자인 요소들을 주종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치시킨다. <표 1>의 형태는 직육면체
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탈구조성과 다원성
의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한 형태이다.

<그림 17> ~ <그림 19>는 잡지에 실린 여러 가
지 사진들을 부분적으로 오려내어 <표 1>과 같은 발



<그림 15> Moschino
(2003 S/S Collection)



<그림 16> R. Calvalli
(2003 S/S Collection)



<그림 17> 활용예 1



〈그림 18〉 활용예 2



〈그림 19〉 활용예 3

〈표 1〉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발상 모형

탈구조성			상 대 성
규모 전환	용도 전환	위치 전환	
다원성			
시 간 과거-미래	공 간 서양-동양	상 황 사적-공적 일-여가	

상 모형에 따라 재배치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발상을 위한 이미지들을 구성한 작품들이다⁴⁹⁾. 〈그림 17〉은 면 평직을 사각형으로 찢어낸 조각을 분홍과 블랙으로 부분 염색하여 만든 코르셋을 오려내어 모델의 머리 위에 얹음으로써 장식적인 커다란 모자로 용도를 전환하였다. 가방 끈을 도려내어 털코트 앞 여밈 부분을 장식하였으며, 스커트에는 지퍼를 도려내어 앞중심선에 장식하고, 하단 부분에는 가죽 점퍼의 하단 부분을 플라쥬시켜 모직, 금속, 가죽, 니트 등의 다양한 소재를 배합시켜 핑키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그림 18〉은 셔츠의 앞 여밈 부분을 오려내어 등 뒤에 배치하고, 셔츠의 주머니와 말 도안을 스커트 옆선에 위치시켰다. 도트 프린트 스커트

를 리본 모양으로 오려내어 어깨 장식으로 사용하고,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등의 스타일링으로 동화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9〉는 시폰 드레스 힉선 위에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코르셋 여밈 부분을 오려내어 부착시킴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팔목 부분에는 주황색 가죽 코트의 커프스 부분을 오려내어 위 아래 위치를 전환하여 토시처럼 착용시키고, 드레스 하단 부분에는 파란색 스커트를 시폰 드레스 안에 레이어시켜 배치함으로써 보색 대비 효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흰색 스카프를 벨트에 걸치듯이 부착시켜 보색 관계의 색들을 세퍼레이션함으로써 각 색상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이미지에 활기를 주고 있다.

V. 결 론

창의적 발상법은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심리에 호소할 수 있는 패션 상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문화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는 포스트모던 사회 내에서 창의성은 무한한 정보를 끌어 모으고, 이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재조합해내는 능력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49) 〈그림 17〉 ~ 〈그림 19〉는 디자인 발상 모형을 활용한 학생들의 실습물들임.

이에 따라 문화 전반에 콜라주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트렌드에 주목하여 콜라주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이너 작품의 여러 가지 발상 기법 중 콜라주의 조형 의지 및 기법이 활용된 사례들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디자인 발상 모형 중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콜라주는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를 분명하게 하는 독창적인 전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창조적으로 조합한 것⁵⁰⁾으로 정의된다. 콜라주를 통해 패션 디자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다원성을 표현한다. 시간, 공간, 상황을 초월한 이질적인 재료들을 한데 모은다.

둘째, 탈구조성을 구현한다.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다양한 크기의 사진에서 부분을 오려내어 모으고,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사용하여,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어 다른 곳에 위치시킨다.

셋째, 상대성을 실현한다. 다양한 드레스 코드들을 융해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독자성을 유지하여 부조화를 분명히 하면서 독창적인 전체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현대의 소비 사회는 패션 상품이 유용성 못지 않게 새로움에 대한 욕망, 끝없는 차별성과 즉각적 만족 등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의 단선적 획일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선적·거미집적 사고가 필요하며, 콜라주의 기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디자인 발상에 유용한 도구로서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실제 패션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콜라주 기법이 디자인 발상에 활용됨으로써 디자인 및 스타일링의 다양성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계간미술편(1981). *현대미술 용어사전*. 서울: 중앙일

보사.

공혜민(1991).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익, 이용직(1999). *디자인 개론*. 서울: 태학원.

김성곤(1990).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성원경, 김안례 역(1994). *현대 미술의 개념*. 서울: 문예출판사.

소두명(1994). *상징의 과학-기호학*. 서울: 인간 사랑.

양석희(1995). "콜라주 기법의 조형적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학미(1991).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용진(1996).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이영철(1996).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이재현(2000).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이화자(2000). "콜라주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연웅(1999). *현대디자인원론*. 서울: 학문사.

정남영(1990). "현대 미술에 있어서 콜라주의 변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주(1995).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수아(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숙(1991). "콜라주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편집부편(1981).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열화당.

Bolz, Nobert, 윤종석 역(1991). *컨트롤된 카오스*. 서울: 문예출판사.

Chipp, Herschal B.(1968). *Theories of Modern Art*. Univ. of Clifomia Press.

Cornor, Steven 김성곤, 정정호 공역(1997). *포스트모던 문화*. 서울: 한신문화사.

Group Mu(des.)(1978). *Collages*. Paris: Union Generale.

Harvey, Penelope(1996). *Hybrids of Modernity*. London

50) Group Mu(des.), *Collages* (Paris: Union Generale, 1978), pp. 13-14, 재인용,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윤희병 외 역, (서울: 현대 미학사, 1994), p. 134.

- and New York: Routledge.
- Finkelstein, J.(1996). *After a Fashion*.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 Jameson, Fredric, 정정호, 강내희 편역(1992).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도서출판 터.
- Jameson, Fredric, 윤호병 외 역(1994).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 Lévi-Struss, Claude(1966). *The Savag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lmer, Donald D., 남경태 역(2002).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철학 가볍게 하기*. 서울: 현실과 과학.
- Polhemus, Ted(1997).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 Poster, Mark(1997). *Internet Culture*. New York: Routledge.
- Rodari, Florian(1988). *Le Collage*. Geneve: SKIRA.
- Sarup, Madan and Cheng, Chung-ying, 임규현 편역(1993). *테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입문적 안내*. 서울: 이론과 실천.